

인쇄하기



全北日報

인쇄

HOME &gt; 사람들

## 진안초 제57회 동창회, 졸업 50주년 행사 성료

국승호 | 승인 2019.11.18 17:50



진안초등학교(교장 최선용) '제57회 동창회'가 지난 16일 졸업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했다.

제57회 졸업 동기생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윤석정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선후배들이 대거 함께해 훈훈함이 넘쳤다.

특히 진안초 꿈빛오케스트라단은 이날 식전행사에 출연해 대선배들의 졸업 50주년 축하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꿈빛오케스트라단은 진안초 재학생으로 구성돼 관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음악대다.

행사에선 학교발전기금 100만원과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100만원이 기탁됐다. 이날 제57회 졸업생 및 참가 선후배들은 한마음 행사를 진행하며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제57회 동창회 김종구 회장은 "우리는 가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선진 한국을 일궈내는 데 혼신을 다해 일조하고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헌신했다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고 역설했다.

총동창회 윤석정 회장은 "진안초는 개교 113년의 역사를 가진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어떻게 보면 진안의 자존심"이라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승호 기자

---

 인쇄